

우리 시대 한국 문학의 빛과 그림자

정병헌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우리 시대의 문학이 가지고 있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아울러 조명하고, 이러한 성찰을 발판으로 앞으로의 우리 문학이 나아갈 길을 조망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의 근대 문학은 서구 문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의 시대 구분은 서구 문학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문학과 그 이후의 문학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서구 문학은 우리 전통 문학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의 변화를 도모하는 정도로 영향을 끼치는 데 머물지 않았다. 기존의 문학은 서구 문학이 들어오면서 송두리째 그 모습을 상실하고, 서구의 것을 추종하는 방향으로 변모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영향이 아니라 이식(移植)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의 영향 속에 놓인 동양 3국의 공통된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 서구의 영향 위에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멍에가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40여 년 가까운 식민 통치는 우리의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 그런 암울한 과정을 거쳐 광복이 이루어

졌지만, 곧이어 미 군정이 실시되면서 우리의 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는 차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유산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폐허의 더미 위에서 우리의 역사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폐허 위에서 건설된 우리 문화는 이제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처럼 광복 70년의 역사를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은 문학이 우리의 일상과 역사, 환경을 반영하면서 커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문학은 잔혹했던 식민지의 역사나 한국전쟁의 비극적인 모습 등이 문학으로 승화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그야말로 숨 가쁘게 달려온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신의 문학사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문학의 꽃을 피운 것은 진정 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의 암흑한 시기 속에서 우리 문학의 정수가 우리 시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던 기적을 먼저 이야기하고, 우리 문학의 근원과 우리 시대 문학의 관련 속에 나타난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그리고 새 시대 우리 문학의 전망을 이야기하는 순서로 논하고자 한다.

1. 식민지 시대와 우리 시대를 잇는 가교: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의 포구에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341호로 지정되어 있는 ‘정병욱 생가’가 있다. 이 집은 정병욱의 부친이 양조장과 주택으로 같이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지만, 이것만으로 문화

재 지정이 된 것은 아니다. 한국인이 가장 애송하는 시로 뽑힌 윤동주의 〈서시〉가 포함되어 있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육필 원고가 일제의 암흑기, 이곳에 숨겨져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은 소중한 우리의 문화 자산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윤동주는 자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세 부 만들어 한 부는 자신이 가졌고, 나머지 두 부는 학부의 스승인 이양하와 후배인 정병욱에게 주었다고 한다. 본래 윤동주는 1941년 졸업 기념으로 연희 시대의 작품 18편을 묶어 시집을 발간하기 위해 이양하를 찾아 그 방도를 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시가 일제의 눈을 거스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육필 원고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으로 건너가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윤동주가 검거된 지 반 년 후 자신도 학병으로 끌려가게 되자, 정병욱은 어머니에게 윤동주의 시집 원고와 자신의 책과 노트를 소중하게 간수해 달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나 윤동주가 돌아오지 않게 되면 광복 후 연희전문학교로 보내 세상에 알려 달라고 부탁을 한다. 다행히 정병욱은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부상을 입어 후송되었고, 해방을 맞게 된다. 그리고 광복과 함께 북간도 용정에서 귀국한 윤동주의 가족에게 그가 1943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1945년 2월 후쿠오카 감옥에서 악형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정병욱은 어머니에게 맡겨 두었던 윤동주의 시집 원고를 받고, 여기에 자신과 윤동주의 가족들이 보관하고 있던 유작들을 합해 그의 3주기가 되는 1948년 1월 마침내 우리가 보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출간하게 된다. 정병욱의 어머니는 혹시 그의 작품들을 일제에게 들킬까봐 망덕 포구에 있는 집의 부엌 마룻장을 뜯고 그 밑에 소중하게 감추어 두었다고 한다.

일제가 발악했던 식민지 말기, 언어의 정수인 시의 창작은 공개적으

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1946년 발간된 박목월과 조지훈, 박두진의 《청록집》과 식민지 시기 청년의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저항의 표상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통해 우리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던 언어생활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다. 운동주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기 한이 없는 시’를 갖게 된 것이다.

2. 서구 문학의 수용, 얻은 것과 잃은 것

우리의 현대는 서구와 접촉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사는 집과 음식, 생활이 서구의 것으로 길들여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부담스러워졌다. 주텍은 양옥이 편하게 되었고, 한복은 명절이나 결혼식 등 특정한 날에나 겨우 입는 것으로 거추장스럽게 여겨졌다. 빙 둘러앉아 같은 반찬을 나누어 먹던 밥상 풍경도 깔끔하고 단출한 식탁으로 바뀌었다. 국가의 표준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경찰이나 군인의 제복도 당연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 편리함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서구의 것으로 정착되었다.

주변 환경을 반영하면서 이루어지는 문학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우리의 전통적인 문학은 낡고 허름한 모습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서구의 것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음악과 어울려 전승되었던 시조와 가사는 특정 예술가에게서 들을 수 있는 전통 예술로서만 남게 되었다. 중국의 영향권에서 위세를 떨치면서 전통 시의 본령을 차지했던 한시(漢詩)는 이제 문학사의 주류에서 벗어나 연구의 대상으로만 남게 되었다.

우리 시대의 시는 서구의 시를 번역한 작품들과 외면적으로는 아무런 차이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발레리의 〈석류〉를 번역한 작품은 이가림의 창작시 〈석류〉와 외면적으로 아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우리 시대 시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알맹이들의 과잉에 못 이겨
방긋 벌어진 단단한 석류들아,
술한 발견으로 파열한
지상(至上)의 이마를 보는 듯하다!

너희들이 감내해 온 나날의 태양이,
오 반쯤 입 벌린 석류들아,
오만으로 시달림 받는 너희들로 하여금
홍옥의 칸막이를 찢게 했을지라도,

비록 말라빠진 황금의 껍질이
어떤 힘의 요구에 따라
쭈든 붉은 보석들로 터진다 해도,
이 빛나는 파열은
내 옛날의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밀스런 구조를 꿈에 보게 한다.

-발레리, 〈석류〉(김현 옮김, 《해변의 묘지》, 민음사, 1996)

언제부터
이 잉겔볼 같은 그리움이
텅 빈 가슴 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지난 여름 내내 앓던 몸살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깜깜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나 혼자 부둥켜안고
뒹굴고 또 뒹굴어도
자꾸만 익어가는 어둠을
이젠 알알이 쏟아놓아야 하리

무한히 새파란 심연의 하늘이 두려워
나는 땅을 향해 고개 숙인다
온몸을 휩싸고 도는
어지러운 충만 이기지 못해
나 스스로 꺾질을 부순다

아아, 사랑하는 이여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내가 깨뜨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그대의 뜰에

받아 주소서

-이가림, 〈석류〉(《순간의 거울》, 창작과비평사, 1995)

번역을 거친 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시에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중국과 일본의 현대 시 또한 우리와 유사한 모습으로 정착되었고, 제3세계의 시 또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시의 문학성에 대한 비평도 서구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시 자체의 언어미나 음악성은 논의의 속으로 숨어 버리고, 주제의 강조 및 주지적인 것 또는 회화적인 것에서 시의 예술성을 찾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시인이 펼쳐 놓은 난삽한 퍼즐을 푸는 과정이 시의 감상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불잡혀 간 조선인들은 시조를 읊고 민요를 부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고 한다. 그런데 시의 향유 방식이 달라지면서 시를 생활 속에서 누리던 관습은 사라지고, 시의 주제나 이미지를 찾아내는 관례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운율 논의가 소수의 고전 문학 연구자들에 의하여 지속될 뿐, 현대 시의 이해와 감상에서 애써 외면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시 수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이미지이며, 운율(리듬)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난센스 포에트리'가 된다고 말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서구의 시와 만나면서 우리 시의 맥박을 잃고 시의 지식을 받아들였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반드시 있는 법이다. 잃는 것이 그 본질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외국 문화의 수용에서 쟁겨야 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문화 수용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는 이질적인 것을 우리의 것으로 변용시킬 수 있는 포용력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 가능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롭게 이루어진 우리 시의 모습은 이제 우리의 맞춤형처럼 우리의 몸에 딱 들어맞는 문화가 된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윤동주의 절창이 이루어졌고, 《청록집》에 실린 조지훈과 박목월의 화답시 〈완화삼〉과 〈나그네〉가 나타날 수 있었다.

3. 고전 문학의 발전과 중국의 영향

서구 문학을 수용하면서 우리의 현대 문학이 출발하였다. 그리고 외국 문학의 수용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항상 주체적인 수용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 문화는 물과 같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고, 이를 거스르는 것은 대단한 노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서구 문학의 수용과 관련된 말을 하였지만, 전통 시대 문학은 전반적으로 중국 문학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소설의 발생이 그러했고, 또 한국 시 문화의 대종이 한시의 향유라는 점도 그러했다. 관료 배출의 공식 통로인 과거 시험에서 중국의 사상과 문학은 필수 과목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지참해야 할 수험서는 경서와 역사서, 그리고 《문선》과 《고문진보》였다. 우리 문학 중에서 표준을 삼을 수 있다고 하여 《동문선》을 편찬하기도 하였지만, 오랜 역사와 문화의 침전으로 이루어진 중국 문학을 대치할 수는 없었다. 이규보가 과거 급제자 수만큼 소동파가 나왔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문학은 전적으로 중국에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한문이 공식적인 문화 활동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는 한글이 창제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말로 이루어지는 문화는 우리의 말로 전승되었지만, 그것의 기록은 한자로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소설이나 시는 한자로 기록되고 전승될 수밖에 없었다. 최초의 소설로 일컬어지는 《금오신화》나 수많은 한시 문화유산은 그래서 한자를 상용할 수 있는 소수 향유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이다. 작품을 창작하고 수용하는 향유자들은 시간의 완급은 있었지만 우리말을 번역하여 한문으로 적고, 그 한문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중국인들과 교류에서 자연스럽게 필담을 나눌 수 있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들이 향유했던 한문학이 우리 문학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그 작가가 한국인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의 문학은 필수적으로 한국 문학으로서 독자성을 지녀야 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던 것이다. 정약용이 “나는 조선 사람이니 즐겨 조선 시를 짓는다.”라는 이른바 ‘조선 시 선언’을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시와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시의 우열을 가름했던 시대, 그래서 누구나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시대에 정약용은 조선적인 것이 조선 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한국 문학의 독자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향유자 확대를 위한 한글 번역이 이루어졌다. 두보의 시가 번역되었고, 중국 소설이 번역되었으며, 우리의 한문 소설인 채수의 〈설공찬전〉도 번역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말로 이루어진 시조와 가사가 시 문학의 주류로 정착될 수 있었고,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이 창작될 수 있었다. 중국적인 것이 판을 치던 시대에 정약용이 조선적인 시를 쓴다고 한 것에서, 김만중은 훨씬 더 나아가 견해를 표명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詩文)은 자기 말을 버리고 남의 나라 말을

배워 쓴 것이니, 설령 아주 비슷하다 해도 다만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 낸 것일 뿐이다. 시골에서 나무하는 아이들이나 물 길는 아낙네들이 흥얼거리 서로 화답하는 소리가 비록 정제되지 않은 말로 이루어져 있지만, 참과 거짓으로 말한다면 사대부들의 ‘이른바’ 시 부와는 결코 같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김만중, 《서포만필》

김만중의 생애가 그러하듯 주장의 표현은 대단히 과격하다. 자신들을 대단한 문화인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자부하는 시부(詩賦)의 앞에 ‘이른바(所謂)’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문학은 문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속내가 이 말 속에 들어 있는 듯하다. 그런 그이기에 남성들의 최고 목표인 ‘부귀공명’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한 <구운몽>과 당시 가정의 문제를 직접 거론한 <사씨남정기>를 창작할 수 있었다. 허균의 <홍길동전>은 단순히 최초의 한글 소설이었다는 점에서만 그 문학사적 의미가 국한되지 않는다. 김만중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허균은 기득권층은 개혁할 생각도 없었던 문제, 그러나 직접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으로서 피눈물을 토할 수밖에 없는 ‘사람 차별’의 문제를 직접 거론하였던 것이다. <홍길동전>의 시대 배경이 세종 시대로 설정된 것도 그 시대에 서얼 차별 제도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김만중과 허균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소중한 지침을 얻게 된다. 그것은 진솔한 한국인의 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당대 현실의 가장 절실한 문제에 대한 고민과 탐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김만중이 중국의 모방에 급급한 문학을 앵무새가 사람의 소리를 흉내 낸 것이라고 한 점이나, 허균이 당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문제로 인간의 차별을 내세운 것은 지금의 현실에서

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이다. 이것이야말로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 한국 문학의 작가들은 한국인의 진정한 소리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또 이 시대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진단하는 것인가? 문학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 해결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제기된 문제의 실상을 독자 앞에 내보임으로써 그 문제의 확산을 도모하는 것이 문학일 뿐, 거창한 것을 해결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승리를 이끈 진정한 주역은 <톰 아저씨네 오두막집>의 작가인 해리엇 비처 스토(Harriet Beecher Stowe) 부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작가는 노예를 사람으로 보고, 그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현실을 진실하게 그렸다. 노예 해방의 선언은 그런 인식의 확산 위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이 평가가 말해 주고 있다.

현실의 진단은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의 허구적 형상화는 작가의 창작적 기교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 보고 그 세계와 더불어 같이 가야 함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작가는 세계의 실상을 볼 수 있고, 세계와 교감을 이루게 된다. 이를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작가는 사랑으로 세계를 대하고 그 실상을 형상화할 수 있을 때, 작가로서 진정한 사명을 다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4. <상록수>와 전통의 계승

운동주가 그러했듯이 19세의 순수한 청년 심훈은 1919년 3·1운동에 가담하였고, ‘큰 소원’에 대한 열정과 낭만이 아로새겨진 편지를 어

머니에게 보냈다. 뒤에 지어진 〈그날이 오면〉의 짝은 이 편지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소설과 시, 그리고 영화로까지 폭넓게 펼쳐졌던 그의 문학 활동은 그러나 그가 36세의 나이로 요절하면서 마감하게 된다. 그의 대표작인 〈상록수〉는 《동아일보》 창간 15주년을 기념하는 현상 모집에 당선된 것이었고, 여기에서 받은 원고료의 일부는 ‘상록학원’의 설립에 쓰인다. 이 사건은 지극히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래 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자신이 태어나고 삶의 태반을 보냈던 서울을 떠나 낯선 농촌 현장에 거처를 마련하고, 후세를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대단히 낭만적이고 이상을 지향하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은 이미 고전 소설의 영웅 형상화에서 드러나 있어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동혁의 모습은 지도자의 외모에 합당하도록 우람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영신 또한 강렬한 소명 의식을 지닌 전사이면서 동시에 여성으로서 미모를 갖추고 있어 애뜻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당연히 결합해야 하는 두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졌지만 술한 장애가 닥치고 이를 극복해 가는 로맨스의 전형적 구조와 이상적인 남녀의 모습은 어김없이 〈상록수〉에 반복되어 나타난다.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숙명인 듯한 교감을 느꼈고, 이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강한 인연을 지속한다. 둘 사이의 관계가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고, 환경에 의한 방해는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더 결속시킨다는 점은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나타난 형상화 방식과 유사하다.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도 넘나

들고 있다.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이 그러하고, 〈이생규장전〉의 이생이 그러하다. 그들은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지속시킨 것이다. 이러한 낭만적 속성이 〈상록수〉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 우리는 두 사람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과 같은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더구나 둘 사이의 사랑이 여성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금오신화》에서 이미 보았던 모습이다. 〈이생규장전〉의 최량은 스스로없이 이생을 자신의 거처로 불러들인다. 이러한 모습이 전혀 부도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만남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주위의 눈을 의식하여 그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부도덕한 일로 인식되는 것이다. 사랑하고 결합하기로 되어 있는 인물을 두고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는 없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여성들은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거쳐 과단성 있는 행동을 보여 준다. 이 의도적 만남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을 하게 된다. 일은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주인공인 영신은 스스로없이 남성에게 가고, 그리고 둘 사이는 약혼자의 관계로 발전한다. 열정을 가지고 사업에 투신하는 여성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한없이 애뜻하게 작아지는 두 측면을 영신은 유감없이 보여 준다. 인간이란 모두 이러한 양면성을 지닌 존재일 것이다. 변학도 앞에서 그렇게 차갑고 도저한 모습을 보이던 춘향이지만, 이도령 앞에서는 그 마음을 얻고자 가슴 두근거리며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변모한다. 바로 이러한 양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주인공의 앞에 놓여 있는 일도, 그리고 열정도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포장되고 있다. 영신의 모습에서 표독스러운 투사의 모습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심훈은 〈상록수〉에서 전통적인 남녀의 사랑을 반복함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사업을 펴 익숙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고전 소설이 즐겨 사용했던 시의 활용 또한 작가는 놓치지 않고 있다. “이런 때 이런 경우에 동혁이가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비 맞고 찾아온 벼에게>라는 조운의 시조 두 장을 가만히 입속으로 읊었으리라.” 하면서 시조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젯밤 비만 해도 보리에는 무던하다.
그만 깎 것이지 어이 이리 굳이 오노.
봄비는 차지다는데 질어 어이 왔는가.

비 맞은 나뭇가지 새 움이 뽀족뽀족.
잔디 속잎이 파릇파릇 윤이 난다.
자네도 그 비를 맞아서 정이 치(寸)나 자랐네.

이 시를 인용함으로써 작가의 낭만적인 자세와 시정신은 작중 인물인 동혁에게 전이되고, 결과적으로 우락부락한 인상의 동혁은 대단히 섬세한 정서를 지닌 인물로 변화하고 있다.

5. 굴중에서의 탈출과 자존감 회복

병자호란은 1636년 12월 청나라가 조선으로 쳐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 1월 인조가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면서 종결되었다. 청나라는 다른 나라의 항복을 받아 본 전례가 없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어, 조선이 명

나라에 하던 방식대로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조선은 청나라에 당했던 치욕의 방식을 이미 조선 초부터 명나라에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한 산성에 고립되어 있던 12월 말에도 조선은 명나라의 은혜에 감읍하는 행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독립이 되었지만 남북으로 분단되어 강대국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강대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는 실리의 추구라는 이유로 용인 되어 왔던 것이다.

광복 70년이 되는 2015년, 우리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문화 행사가 있었다. 백제의 역사 유적 지구가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던 것이다. 유네스코는 이 유산이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 고대 왕국들 사이의 상호 교류 역사를 잘 보여 준다는 점과, 백제의 내세관·종교·건축 기술·예술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백제 역사와 문화의 특출한 증거라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이미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주 역사 유적 지구’와 함께 삼국시대 두 왕국의 문화가 세계인이 기억할 문화유산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의의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북한과 함께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문화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하는 사명 의식을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백제 역사 유적의 문화유산 지정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한껏 드높여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쾌거는 일본의 문화유산 등재 문제로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같은 시기에 일본은 메이지 시대의 산업 시설 23곳을 ‘메이지 산업혁명: 철강, 조선 그리고 탄광 산업 시설’로 지정하여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하였는데, 그중 일곱 곳이 조선인 강제 징용의 한이 서린 곳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러한 사실은 적시하지 않은 채, 아시

아에서는 유일하게 서구 열강을 본받아 산업화를 이루었다는 자신들의 역사 미화에 이를 이용하고자 했다. 따라서 일본의 신청은 강제 노역과 관련되는 주변국, 특히 한국의 저항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의식하여 일본은 마감일을 며칠 앞두고 비공개로 신청하고, 또 한국이나 중국인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된 1910년 이후의 역사를 포함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기간을 1850년부터 1910년까지로 한정하기도 하였다.

일본이 이렇게 미래에 벌어질 일까지 예상하면서 세심하게 일을 처리한 데 반하여 한국은 일본의 신청에도 대범한 듯 별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한국은 일본과의 수교 50년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 한일 관계 냉각의 책임이 상당 부분 한국에 있다는 미국 등의 시선에 곤혹스러워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아베는 끊임없이 자신은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다. 고도의 계약 앞에서 참으로 순진한 몸짓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였다. 마치 우리의 전 역사에서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 끊임없는 탐색을 하였지만, 우리는 그 속셈을 알지 못했거나 또는 알면서도 적당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했던 방식이 반복되었던 것과 같다. 과거의 역사에서 일본의 해적들은 끊임없이 해안은 물론 내륙 깊숙이 침범하였다. 또 화친의 가면을 쓴 채 통상 요구나 개항 요구를 통하여 그들의 거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침략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첩자를 보내 세세하게 우리의 실정을 탐지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가 임진왜란이나 일제 강점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문화유산의 등재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21개국의 총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본은 이미 기존 위원국이었고, 그나마 한국은 결정되기 1년 전에 위원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한일 간 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한국이 위원국이 아니었다면 이 게임은 하나 마나 한 것일 수도 있었다. 또한 일본은 다음 해에는 위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의 등재는 필사적으로 이루어 놓아야 할 일이었다. 한국은 이 격돌을 위하여 새로 들어갔고, 일본은 이번이 아니면 다음 해에는 들어갈 수 없는 운명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의장국인 독일을 위시하여 다른 위원국들은 두 나라가 원만한 타협을 이루어 기존의 관행대로 표결 없이 통과되기를 희망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협상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결정을 하루 늦춰 가면서까지 두 나라의 협상을 독촉하였다. 이는 두 나라의 정상을 비롯한 외교 당국의 필사적인 외교전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한 한국이나 일본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 주기 어렵다는 위원국들의 내심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아시아 유일의 서구화를 이룩한 흔적, 그리고 서구 열강을 본떠 식민지를 개척한 조상들의 업적이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강제 노역’이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명기하라는 한국의 요구에 봉착하였던 것이다. 이는 산업화가 자신들의 정당한 활동이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침략과 비인간적 노역을 통하여 이룩된 결과라는 사실을 기록에 남겨 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을 것이다. 식민지 시절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미 한일 협정으로 끝났고, 또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신들과 동등한 국민의 차원에서 동원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타협을 원하는 위원국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정을 하루 늦춰 가면서까지 협상을 벌였고, 우리의 요구 사항을 등재 결정문의 본문은 아니지만 각주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타협은 강제 동원 문제를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한 한

국의 실리와 자신들로서는 껄끄러운 문제를 본문이 아니라 각주 형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얻게 된 일본의 명분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일본의 잔폐에 또 당했다.’거나, ‘뒤통수를 맞았다.’는 불만이 나왔고, 일본에서도 ‘한국에 과도하게 양보했다.’거나 ‘강제 노동을 인정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일본의 역사가 주변국의 침략과 폭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온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정을 하루 늦춰 가면서까지 진행되는 협상의 과정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물론 본문에 기록되는 것을 관철하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협상이 일방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정도의 결과는 ‘판정승’이라는 평가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한국과 관련되는 사항에서 강대국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은 기대 밖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합의가 된 이튿날 곧바로 일본이 강제 노역에 해당하는 ‘포스드 투 워크(forced to work)’라는 말을 ‘원하지 않음에도 일하게 됐다.’로 번역하여 자국민에게 알리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식민지였던 국가가 상대국에 대해 침탈을 인정하게 하고, 침략국의 성장이 자신들의 뼈아픈 고통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요구는 어디에서도 없었다. 남미나 아프리카에 수많은 식민지를 경영했던 서구 열강 어느 나라도 이런 저항에 부딪힌 일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요구를 세계가 받아들였고, 결국 일본은 자신들의 문화유산이 주변국의 침탈과 착취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같은 위원국이면서 일본의 침

략으로 고통을 겪었던 베트남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를 지켜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국이 치욕의 역사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적시하게 한 것은 다시는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받았던 치욕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거리감의 확보가 있을 때 만 굴종의 역사는 미래의 희망찬 역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6. 새 시대 우리 문학의 전망

굴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선인들은 우리 문학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통 시대의 허균과 김만중은 우리의 문학이 진솔한 한국인의 소리를 담아야 하며, 당대 현실이 가지고 있는 절실한 문제에 대한 고민과 탐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문학으로 형상화하였다. 문학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스토티 부인의 <톰 아저씨네 오두막집>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홍길동전>이 인간의 차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형상화한 것처럼, 최고의 고전인 <춘향전>도 인간 차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였다. 우리 시대의 작가들도 현실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하여 문학이 가진 사명을 일깨워야 문학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 문학에 대한 대중의 외면은 단순히 매체의 변화라는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심훈은 <상록수>에서 고전 문학이 소중하게 가꾸어 놓은 전통을 그 바탕에 두고 그 위에 자신의 줄기를 뻗고 열매를 탐스럽게 열게 했다.

지난 전통을 폐기하고 새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소중하게 키워 새 시대에 걸맞은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던 것이다. 문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시대 상황에 대한, 고귀한 분노를 터뜨렸던 운동주의 정신, 그리고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정병욱의 노력이 우리 시대의 문학을 이만큼 키워 줄 수 있었다.

우리 시대의 작가들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자신의 개성과 창의력, 그리고 상상력을 통하여 우리의 문학이 세계 문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시켰다. 그렇게 이 시대의 문학을 책임지고 있는 작가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새로운 시대의 문학을 개척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은 보고 싶은 대로 보이기 마련이다. 사랑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찬연한 모습을 보여 줄 것이고, 허접하게 보면 또 그것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가들이 겪었던 고난과 열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의미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문학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긴 시간 가지고 있었던 굴종 콤플렉스를 떨쳐도 괜찮은 모습을 우리는 광복 70년을 맞는 올해, 문화유산 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의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고난과 아픔까지도 소중한 우리의 자산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친일 논란이나 이념 논쟁, 그리고 최근의 표절 의혹에서도 대범한 사랑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친일이나 표절 문제 등은 적당히 용인하기 힘든 엄청난 문제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문학사 전체에서 바라보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찾아낸다는 시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방기해야 할 부정적 요소로 보면 그것이 차지했던 그 넓이는 또 속절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긴 문학사를 놓고 보았을 때 그것들이 차

지하는 비중은 너무 작은 한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대범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에도 존재하는 사면 제도와 같이 문학에서도 과거의 문제를 덮고 미래의 문학, 세계로 향하는 문학을 위하여 ‘흙 찾아내는 작업’보다는 창조에 열정을 보이는 계기로 광복 70년을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은 천리마와 같이, 꿈과 같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찾고 키우기를 기다리는 존재이다. 잠시의 부정적인 평가를 이유로 천리마일지도 모르는 대상을 사장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천리마를 얻기 위해서는 죽은 천리마의 뼈라도 수습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족으로 국립국어원의 위상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 국어 문화의 발전을 통해 우리 문화가 발전하고 세계 문화의 주축이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에 대한 공식적 대답이 국립국어원의 설립과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국어로 이루어진 문화를 담당하는 또 하나의 기관으로 한국문학번역원이 있지만, 이 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이름에서 이미 한정되어 있다. 현재의 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환경의 개선과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 측면으로 그 기능이 한정되어 있지만, 국어로 이루어진 문화 전반의 문제로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 시대, 특정 집단에 의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글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자신의 독자적인 언어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바로 한국어와 한국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국립국어원이 국어학, 국어 교육의 울타리를 넘어서 한국어로 이루어진 모든 분야의 문화를 기획하고 후원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